

예술의 전당 명품 공연 스크린으로 즐긴다



'11시 콘서트' 진행자 조재혁



독일밤베르크 교향악단 지휘자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아트스페이스서 7월까지 14개 작품 상영

클래식·연극·발레·국악...

'11시 콘서트'는 생중계 진행

선착순 100명 무료 참여

■ 2017년도 삭온스크린

상영일시	공연명
3. 20 오후7시	밤베르크 교향악단 교향곡 '운명'
3. 27 "	밤베르크 교향악단 교향곡 '전원'
4. 6 오전11시	'11시콘서트' Bells(벨즈) 슈트라우스 2세 '봄의 소리 알츠'
4. 10 오후7시	페리클레스/연극
4. 24 "	드보르작의 신세계로부터
5. 11 오전11시	'11시콘서트' 폴로네즈 '에브게니 오네긴'
5. 15 오후7시	헨델의 메시아
5. 29 "	국립국악원 종묘제례악/국악 '11시콘서트' 오리엔탈 환타지 베를리오즈 '환상교향곡' 등
6. 12 오후7시	라 바야데르 발레
6. 26 "	마술피리/오페라
7. 10 "	중발/현대무용
7. 13 오전11시	'11시콘서트'
7. 24 오후7시	보물섬/연극

'삭온스크린(SAC ON SCREEN)'은 예술의 전당이 제작한 예술 콘텐츠를 대형 스크린을 통해 즐기는 프로젝트다.

10개가 넘는 카메라가 여러 각도에서 잡아내는 역동적인 화면과 UHD 고화질 영상, 5.1채널 입체 사운드 음향 등이 어우러져 꼭 '공연장'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특히 여러 카메라가 담아낸 아티스트의 생생한 표정과 몸짓, 무대의 세심한 부분까지 볼 수 있어 생동감이 넘친다.

지난해 부터 광주와 전남에서도 '삭온스크린'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었다. 광주문화재단은 올해도 100석 규모의 빛고을아트스페이스 2층 소공연장에서 '삭온스크린' <일정 표 참조>을 진행, 7월까지 클래식, 연극, 무용, 국악 등 모두 14개 작품을 상영한다. 특히 올해는 예술의 전당 인기 프로그램인 '11시 콘서트'(매월 둘째주 목요일)를 '라이브'로 직접 즐길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올해 13번째 시즌을 맞는 '11시 콘서트'는 클래식 음악 방송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친숙한 피아니스트 조재혁이 길라잡이로 나선다. 매회 조씨가 피아노 연주와 함께 해설을 들려주며 정상급 연주자들의 무대가 이어지는 콘서트다.

올해 '삭온스크린' 첫 작품은 1946년 창단한 독일밤베르크 교향악단 연주회 실황이다. 지난해 10월 예술의 전당 공연 실황으로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의 지휘로 20일에는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을, 27일에는 교향곡 6번 '전원'을 만날 수 있다.

4월 10일에는 연극 '페리클레스'를 공연한다. 셰익스피어 작품 페리클레스는 지난해 앙코르 공연을 진행했으며 50의

모래가 빛어내는 무대 미장센과 양정인의 섬세한 연출이 어우러져 많은 화제를 모았다.

무용 공연도 눈에 띈다. 세계적인 안무가 아이다 헤르만 을 초청해 제작했던 국립현대무용단의 '증발'(7월 10일)과 국립발레단의 '라 바야데르'(6월 12일)가 관객들을 만난다. 클래식 공연으로는 헨델의 '메시아'(5월 15일), 드보르작의 '신세계로부터'(4월 24일), 오페라 '마술피리'(6월 26일)가 대기중이다. 또 국립국악원의 '종묘제례악'(5월 29일), 예술의 전당이 제작한 가족극 '보물섬'(7월 24일)도 관객들을 만난다.

4월 6일 열리는 첫번째 '11시 음악회'는 '벨르(Belle)'가 주제다. 코리아콤포지트(지휘 여자경)의 지휘로 라벨의 '짜잔느',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 등을 만날 수 있다.

5월 11일에는 '폴로네즈'가 주제다. 피아니스트 정재원, 비올리니스트 이한나가 함께하며 브루흐의 '비올라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로망스 F장조', 리스트의 '피아노 협주곡 제2번' 등을 연주한다.

6월 8일에는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지휘 이종진)가 유영욱(피아노), 한정진(바이올린)과 함께 '오리엔탈 판타지'를 주제로 랑스카-코르사코프의 '세헤라자데', 멘델스존 '피아노 협주곡 제1번' 등을 연주한다.

예술의 전당은 올 한해 서울예술단의 창작 뮤지컬 '운동주, 달을 쏘다', 연극 '병동소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국립오페라단과 공동 제작하는 오페라 '라 보엠' 등을 영상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모두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전화로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선착순 100명. 문의 062-670-794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점 위의 점'...박호영 첫 개인전

31일까지 갤러리S

미술대학 졸업생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 예술활동을 잠시 접을 때도 있지만 작가로서의 길을 걷고 싶은 꿈을 간직하고 있다.

박호영 작가도 마찬가지다. 조선대 조소과와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후 작은 사업을 시작하며 미술과는 무관한 길을 걸었다. 하지만 주안미술관 개관을 주도하고 후배들에게 작업공간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항상 미술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

박 작가가 31일까지 갤러리S에서 첫 번째 개인전 '점 위의 점'(Dot on Dot)을 열며 꿈을 펼친다.

이번 전시에서 박 작가는 섬유강화플라스틱(FRP)을 재료로 만든 'Dot on Dot' 연작 등 작품 17점을 선보인다.

흔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변화할만한 계기를 만났을 때 '점을 찍는다'고 표현한 데서 따와 전시 주제는 '점'으로 잡았다.

작품은 원이나 타원형 조형물을 일정한 간격으로 24개 배치했다. 스케치를 바탕으로 하는 전통적인 조각방식에 컴퓨터 3D모델링 작업을 가미해 완성한 작품이다.

후배들과 함께 고민하며 관객들이 화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초록, 빨강, 파랑 등 밝은 원색을 사용했다. 특히 조형물 위쪽을 비스듬히 깎아 형태에 조금씩 변화를 주며 보는 각도에 따라



'버스터'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의도했다.

또한 높이 2.5m 대형조형물 '버스터'와 약 50cm 크기 '캡틴 트럼프' 등 미국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작품도 출품한다. 영화 속 캐릭터를 작가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재해석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은근히 풍자한다.

박 작가는 "우연히 전시 기회를 얻게 돼 웃으면서 시작했지만 다른 작가들과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힘있게 작업에 매달렸다"며 "이번 전시를 계기로 전업작가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010-7340-011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일 포스티노' 다시 만난다



광주극장 24일 개봉

시(詩)에 관한 아름다운 영화 '일 포스티노'(1994)가 20여년 만에 다시 관객들을 만난다. 많은 이들이 '내 인생의 영화'로 꼽는 작품이기도 하다. 광주극장 24일 개봉.

이탈리아말로 '우편배달부'를 뜻하는 '일 포스티노'는 이탈리아 나폴리 작은 섬을 방문한 세계적인 시인 네루다와 그에게 우편물을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된 우

편배달부 마리오의 우정을 그리고 있다.

네루다에 의해 시와 은유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된 마리오의 모습과 아름다운 자연 풍광과 많은 이들에게 친숙한 영화 음악 등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다.

외국 영화로는 드물게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감독상, 작품상 등 5개 부문 후보에 올랐고 음악상을 수상했다.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

위터스크린 홀로그램 '유토피아' 광주서 펼쳐진다

그림 '루빅', 내일 5·18민주광장 상영

여수세계박람회장에 자리한 'The Big O'쇼는 물줄기에 투영한 대형 영상 작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The Big O'와 같은 위터스크린 홀로그램 작품이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상영된다. 광주 미디어아티스트 4인으로 구성된 '루빅'(Lubig)팀이 21일 오후 8시 홀로그램 영상 콘텐츠 '유토피아' 작품을 선보인다.

'루빅'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사업인 '광주콘텐츠코리아랩 융합산도과제'의 하나로, 첨단기술을 기반

으로 한 미디어아트공연을 제작하는 신생 기업이다.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유토피아'는 '오즈의 마법사' 스토리에 해저 배경을 접목해 신비롭고 웅장한 분위기로 진행된다. 또한 사전행사로 광장 한편에서는 대형풍선 조형물을 설치해 프로젝션 맵핑과 전자음악으로 구성된 미디어 파사드 공연을 선보인다.

신상우 '루빅' 대표는 "이동형 위터스크린을 이용한 홀로그램 콘텐츠와 첨단영상기술을 이용한 융복합 공연을 통해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선정도시로서의 광주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혜은이 디너쇼

2017.04.11.(화) 19:00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15세 미만의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입장 18:40 / 식사 19:00 / 공연 20:00 / 퇴장 21:40

165,000 원 (VAT포함)

Shin Yang Park Hotel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

Hye Eun Lee
2017 Dinner Show